

민족주의에 대한 네가지 패러다임

yas

근대주의(Modernism) 근대주의는 제2차 대전 이후 주류를 이루는 패러다임이다. 민족과 민족주의를 새로운 근대화 과정에서 도출하고 있고, 국가, 민족과 민족주의, 그리고 특히 엘리트들이 어떻게 근대적인 조건들과 근대적인 정치적 지상명령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주민들을 동원하고 하나가되게 했는지 설명하려고 한다. 예컨대 베네딕트 앤더슨(Reneclit Anderson)과 에릭 홉스봄(Eric Hobsbawm)은 특히 광범위한 커뮤니케이션의 네트워크들과 민족공동체들을 만들 때 의례활동과 상징주의의 역할을 밝혀내려고 시도했다. 마이클 만(Michael Mann), 존 브로이(John Breuilly), 찰스 톨리(Charles Tilly) 그리고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 같은 학자들은 국가, 전쟁, 그리고 관료제의 역할을 입증해 보이는 데 많은 작업을 해보였다. 3) 한편 정치 엘리트들의 결정적인 역할과 그들의 전략들에 대해서는 폴 브라스(Paul Brass)와 헥터(Michael Hechter)와 같은 학자들에 의해 탐구되었다.4) 미로슬라브 흐로흐(Miroslav Hreuxch), 톰 네인(Tom Nairn) 그리고 에르네스트 겔너(Ernest Gellner)나 엘리 케두리(Elie Kedourie)5) 같은 연구자들의 인텔리겐치아의 역할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다. 민족은 언제 출현 하였는가라는 민족의 기원에 관한 문제는 가장 많은 시각차를 불러일으키는 쟁점이다. 근대주의자들은 민족의 출현에 관한 위커 코너(Vilker Conner)의 연대 설정)에 동의하지 않는 일군의 학자들이다. 근대주의자들은 민족과 민족주의의 출현 시기를 대개 18세기 후반으로 설정한다. 그들은 민족과 민족주의는 모두 근자의 것이고 새로운 것이며, 근대성의 산물로 간주한다. 근대주의자들은 대체로 민족의 근대성에 의견일치를 보이지만, 민족이 출현하는 원인에 있어서는 약간씩 차이를 보인다. 어떤 이들은 그 원인을 산업자본주의에서 찾고, 어떤 이들은 중앙집권화된 전문적인 국가의 성장에서 찾으며, 또 어떤 이들은 근대적인 매스 커뮤니케이션과 세속교육의 본질에서 찾는다. 겔너와 같은 근대론자는 근대 사회의 사회적 분업과 유동성의 문제를 민족주의 출현의 원인으로 보았다.

② 영존주의(Perennialism)영존주의는 민족을 근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장기지속적(longue durée)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민족들의 역할을 역사발전의 장기적인 구성요소들로 파악한다. 즉 근대에 와서 만들어진 발명품으로 근대성과 관련시켜서만 보는 관점을 벗어나려고 한다. 즉 민족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든, 아니면 없어졌다 다시 깨어나는 반복적인 것인지에 상관없이 말이다. 영존주의자들은 민족을 근대화의 과정보다는 족류공동체의 유대로부터 도출해내는 경향을 보인다. 조슈아 피쉬맨(Joshua Fishman), 존 암스트롱(John Armstrong), 시튼 왓슨(Seton-Watson), 그리고 족류성에 관해 위커 코너(Vilker CARINT)와 도날드, 호로비 Annaiki Arovitz) 같은 영존주의적 접근방식은 민족주의에 대한 민족의 지지를 불러일으키는 데 있어 언어, 족류적 유대의 기능, 기원 신화, 가족이라고 하는 메타포의 힘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점에서 영존주의자들은 보다 극단적인 근대주의적 해석을 수정하는 데 가치 있는 기여를 했고 족류적 현상의 연속과 반복을 깨닫게 해주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신 영존주의(Neo-Perennialism)는 영존주의를 계승하여 근대주의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 패트릭 위말드(Paurickwomald), 존 질링엄(John Gillingham), 수잔 레이놀즈(Susin Resmolds), 그리고 아드리안 헤스팅스(Adrian Hastings)와 같은 이들이 신 영존주의자들이다.원생주의(Primodialism)원생주의는 언어, 종교, 영토 그리고 혈연 같은 기본적인 사회적 문화적 현상들의 원생적 속성들로부터 도출해냄으로써 민족과 민족주의에서 나타나는 열정과 자기희생적 특징을 이해하려고 애쓴다. 원생주의는 문화적 또는 사회생물학적 변종들로 나누어진다. 원생주의적 접근방식은 족류성과 혈연관계 사이에, 또 족류성과 영토 사이에 친밀한 관계에 민감하며, 강력한 집단 소속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을 밝혔다. 이점은 반덴 베르그(Picme van Jen Perghe)10)와 고대 이스라엘에 대한 클리프드 기어츠(Cliflord Gcertz)의 연구에서도 분명하다. 원생주의자들은 족류성, 혈연, 영토가 이렇게 강력한 집단 소속감을 일으키는 시에 연구에 초점을 준다.

원생주의는 근대주의자들이 간과해온 질문들, 예컨대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을 위해, 또 오늘날 민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지에 대해 원생주의자들은 설명하려 한다. 이 질문은 '원생성' 개념에 있다. 원래 여러 종류의 유대 개념들 - 사적인, 성스러운, 시민적, 그리고 원생적 -로 구분했던 쉴즈(Edward Shields)에 의해 발전된 원생적 유대의 개념을 기어츠가 받아들였다. 11) 원생주의의 맹점은 원생주의 자체가 족류 집단의 형성과 해체 과정을 알 수는 있지만, 민족의 기원과 문화적 모양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반 덴 베르그는 이런 주장을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지만 민족들의 기원이라는 질문에 관한 기본적인 발생론적 출현 동력 이론은 모든 확대된 친족 집단을 망라하는 생물학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원생주의자들의 독특한 기여는 족류성과 민족주의가 그렇게 자주 환기시키는 강렬함과 열정에 우리의 관심을 맞추도록 했다는 점이다. 다른 한편, 원생주의는 민족의 기원 설정과 성격을 포함하는 다른 질문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형성과 형태에 관한 인과론적인 역사분석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족류-상징주의(Ethno-symbolism)족류 상징주의는 근대성의 문제들에 직면함에 따라, 특수한 민족들에서 주류 정체성들의 상징적 유산들을 밝혀내고, 또한 어떻게 근대 민족주의와 민족들이 그들이 주류 의사들의 상징, 신화, 기억, 가치 그리고 전통을 재발견하고 재해석할지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존 암스트롱은 족류적이고 민족적인 애착심을 일으킬 때, 또 문화적 사회적 네트워크를 주요해 될 때 작용하는 신화, 상징, 가치, 그리고 기억의 역할을 추적했다. 이런 시도들은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주관적이고 역사적인 차원들에 대한 평가에 덧붙여진 것이다. 이것은 민족주의자들이 민족적 목적을 위한 족류 상징적 레퍼토리를 재발견하고 사용했던 방식들, 족류 선별, 성스러운 영토, 집단운명 그리고 황금시대에 대한 신화와 기억들을 조사한다. 이들이 기억들과 상징들을 매개체로 사용하는 것은 그 민족의 특성과 역사를 개념정의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특정한 민족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애착심을 굳건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족류 상징주의는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해 족류 중심주의적 시각을 견지하는 연구방법론이다. 민족에 대한 일차적 관심은 '근대성'에 있지 않으며, 정체성과 역사를 강조한다. 족류 상징주의에서 강조하는 문화는 단순한 상징이나 전통, 혹은 의례 그 자체가 아니며, 그것들이 불러일으키는 집단 활동의 의미이자 지향점이다. 또한 족류 상징주의 연구에서의 핵심은 근대 민족을 이해하기 위한 첫 단계로 족류와 민족사이의 관계에 있다.

족류 상징주의에서 중요하게 취급하는 전통과 문화의 모든 요소들 - 법률과 관습, 제도, 종교, 미술, 음악, 춤, 건축, 가족의 관행 그리고 언어에서 암호화된 신화, 상징, 가치 그리고 기억 - 은 가족들을 조상공동체 안으로 묶는 데 기여해왔다.12) 무엇보다, 상징은 공동의 유산과 운명을 계속 반복해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전통과 문화의 모든 요소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공통의 상들 기억하게 해주고, 새로운 세대들에게 우리의 부모들의 습성과 전통들을 심어주며, 공동 생활방식과 공동체의 제도들에 이정표가 된다. 그건들은 경외와 향수의 감정들에 가시적인 자극제가 된다. 그것들은 우리를 우리 가족의 유산으로 되돌아가게 하고 운명공동체로 나아가게 한다. 이런 식으로, 족류-상징주의는 집단의 노력과 경험에 있어서 중대한 신화와 기억들을 도표로 작성하게 하고 조명하게 하며 족류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가족은 그것들로부터 그것의 자양분과 신념을 끌어낸다. 13)족류 상징주의를 대변하는 스미스는 장기지속적인 사회적 문화적 요소들

을 분석하는 데 있어, 민족과 민족주의는 분리시켜 다루어져야 하고, 현재, 과거, 미래로 나누어 다루며, 족류와 민족의 사회적 문화적 특징들이 서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연구해야 할 것을 권한다.